

2023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서울	응시횟수	1
임용시험 준비시작 시기	대학원 5기 재학 중	합격 준비기간	1년	시험준비 병행여부	해당사항 없음

● 합격점수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20]점 / 전공(교육과정) [54]점
최종 합격점수	[167.97]점
가산점	[0]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합격수기 제목 : 2023 서울 초수 차석 합격수기

0. 여는 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입시를 마치고 합격수기를 적고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제 수기는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아 벌써부터 민망하지만 임용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설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저같은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합격에 다다르실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자 함에 의의를 두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와 간단한 타임라인입니다.

1. 학부에서 회화 전공, 졸업 직후 교육대학원 2020년 전기 입학.

2. 3기 여름방학~4기까지 논문 작성. 4기까지 모든 학점 및 졸업시험 관련 절차 완료. 5기에는 형식적인 논문심사와 졸업 관련 서류 제출 외에는 하지 않음. 임용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고 시작.

3. 2022년 임용 올인, 8월 대학원 졸업.

4. 대학원 재학 당시 위상미술 기본, 심화이론 인강 수강. 교육학은 수강이력 없으며 임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수강.

1차: 교육학 20 / 전공 54 → 컷 +6.7

2차: 실기 25.33 / 심층면접 38.67 / 수업실연 20 / 지도안 9.97 → 컷 +16.24

초수, 차석으로 서울지역 합격

1. 1차 시험 학습 방법

1) 전공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미술 전공이론 기본과 심화는 모두 수강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꼭!!! 기본이론이라도 한 번은 수강하고 입시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기본이론 수강이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올해 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전공이론은 양이 많고 점점 이론이 추가되지 절대 줄지 않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한 번은 듣고 가시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들었다고 들리는 양과 질이 처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미술을 전공했다고 한들 시험을 보기 위한 이론으로 마주했을 때의 그 막막함과 답답함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경험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시간이 있을 때 꼭 기본이론 한 번은 들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부디 부디 꼭.. 이론 미리 들을 여력이 있으시면 꼭!!!! 들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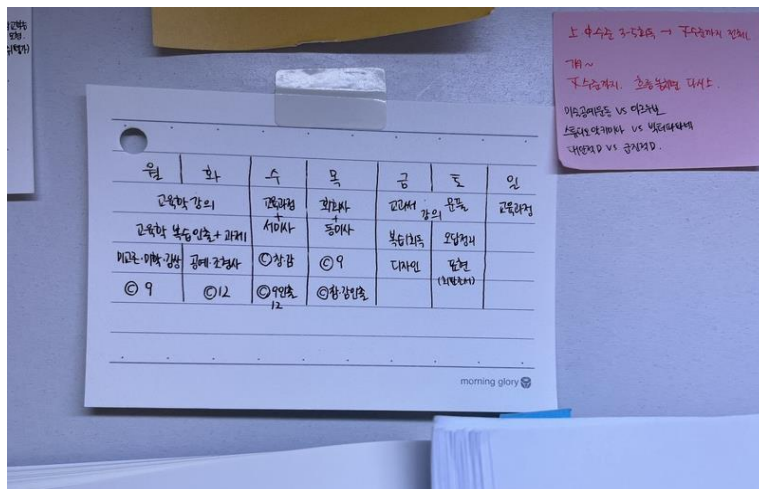
강의 하나만 소화하기에도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 처음 임용공부를 접하는 선생님들은 여러 강사

님의 강의를 들어 보시기보다는 위상미술로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공부법

저는 시기별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끄럽지만 치밀한 계획이나 방법을 두지 않고 냐다 공부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 점수도 높은 편이 아니었구요. 전반적으로 위상미술 1년 커리큘럼 직강 출석하며 그대로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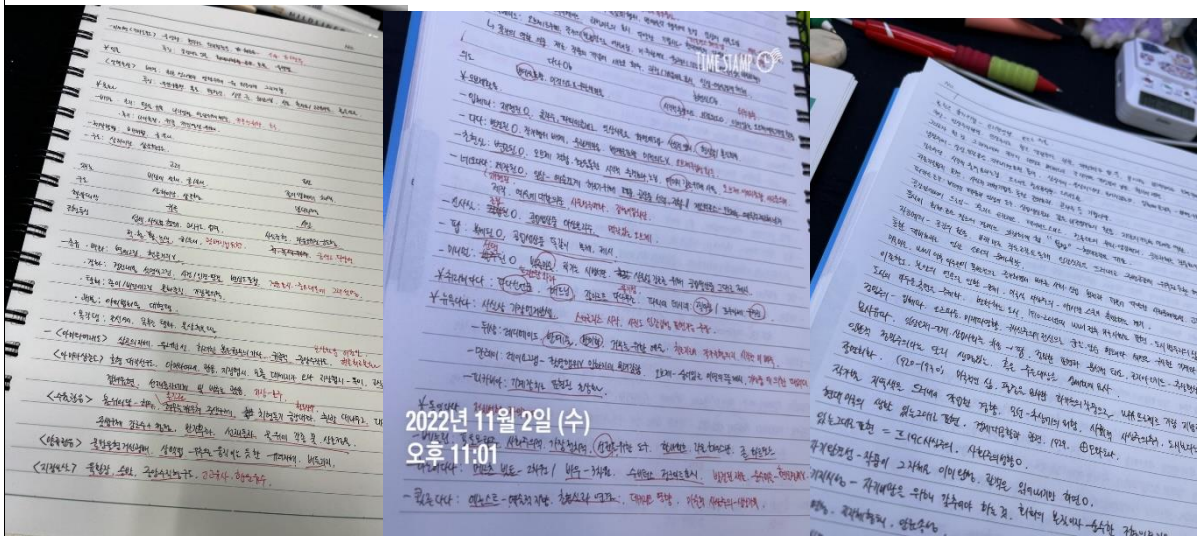
공부법은 별 게 없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이해부터 하고 다음으로는 무한 인출... 인출이 답이고 끝이었습니다. 지루한 정공법이 결국 성적을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원 선생님께 공유받은 인출용 자료를 기반으로 하반기부터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인출했습니다. 월요일은 미교론, 감상, 교육과정 / 화요일은 공예, 조형사 이런 식으로요.



5-6월 강의 들으며 붙여 두었던 계획포입니다. 하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진행했습니다.

물론 인출할 양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매일 할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출보다도 인출 한 내용 채점이 중요합니다. 피곤하더라도 꼭 인출 한 내용 채점 하시고 틀린 부분은 바로바로 재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외워지거나 잘못 알고있는 정보는 끝까지 잘못 알고 있게 되더라구요.

1-2월 시작부터 인출을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은 교육학과 달리 구조화 자체가 어렵고 인출을 바로 할 만한 구조화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상 수준 이론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회독했습니다. 암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읽고 곱씹으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주동안 서미사를 붙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시다면 바로 인출 돌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백지인출은 5월 접어들고 나서부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출 분석은 학원에서 해주는 것 이외에 시간을 들여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다 보니 제가 대체될 한 것인가 싶긴 하지만... 제가 한 개인 공부는 이론 인출과 회독이 전부였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안 외우면 그냥 틀리는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노랫말을 붙이기도 한데 저는 냅다 외웠고 주 1회 전화로 인출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시험이 임박하고 나서는 중,고 / 미창, 미감 나누어서 주 1회독 돌리는 방식으로 주 2회 진행했습니다.

➤ 스테디

여럿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고 싫은 선생님을 제외하면 반드시 구성하심을 강력 추천합니다. 1월 직강 첫날에 전공 섞어 구성해 주셨던 스테디가 한 명도 빠짐없이 11월 종강까지 갔습니다. 운이 참 좋아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덕도 있지만 저처럼 게으르고 누군가 채찍질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에게는 스테디가 정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매일 강의가 끝나면 모여서 궁금했던 것 나누기, 해당 날짜의 강의 분량 돌아가면서 설명하기, 모의고사 시즌에는 답안 공유 및 상호 피드백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인출하고 카톡방에 인증했습니다.

➤ 필독서

따로 본 게 없습니다. 임용 시작 전에 클릭 서미사 한 번 읽었고 그냥 기본서를 마르고 닳도록 봤습니다. 현대미술사 사전이며 세계미술용어사전을 구매했으나 정말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서미사 용어 정도만 찾아 보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활용할 줄 몰라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전도 굳이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읽으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시험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이 촉박한 와중에 필독서까지 손대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독서에 관해서는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 선택하시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 요약노트

스터디원 선생님과 둘이서 분량을 나누어 앞서 언급한 인출자료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요약노트는 비추천합니다. 생각 외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절반을 나누어 진행했음에도 꼬박 한 달을 투자해서 완성했습니다.

➤ 단권화

기본서에 했습니다. 기본이론을 3공으로 뚫고 거기에 심화책, 모의고사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다 끼워 넣었습니다. 단권화에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권화 예쁘게 하는 거 물론 재밌고 좋은데 심화책을 뜯어서 정리하는 데에만 저는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 공부법

공부법은 마찬가지로 오직 인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교육학도 결국에는 무한 인출로 잡았습니다. 형성평가 오답 복기하고, 요약자료 보면서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인출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날의 내용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진도 범위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점차 교육학 비중을 줄여가며 마지막에는 매일 정해진 범위를 오전 중에 회독만 했습니다.

교육학은 구조화 빈칸자료를 보며 1월부터 인출했습니다. 인출 안 되는 항목은 과감히 넘어가고 무조건 인출하고 채점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 스터디

마찬가지로 1월 개강 직후 직장생 대상으로 짜 주시는 스터디에 랜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그 스터디를 진행하며 공부했습니다.

초반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 오면 푸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후부터는 수업 전에 정해진 범위 구두인출+수업이 끝나면 복습 진행했습니다. 사실 교육학은 스터디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느껴서... 선택하기 나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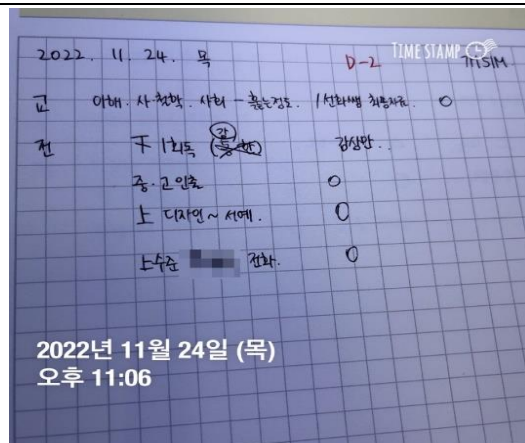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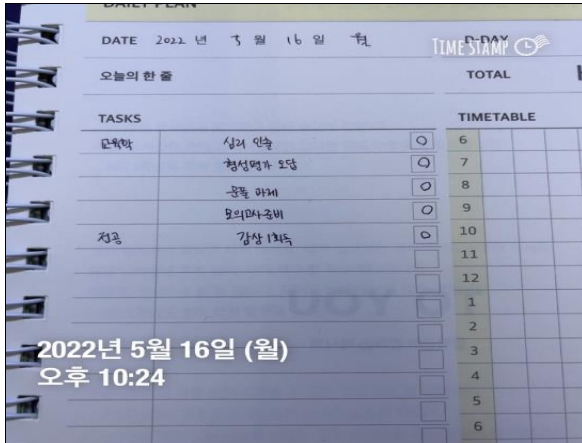
➤ 요약노트

만들지 않았습니다. 받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요약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전공 요약하기 바빠서... 해봤자 기본서에 추가내용 필기 해넣는 정도? 마지막까지 기본서만 봤습니다.

➤ 단권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권화라기엔 민망하지만 기본서에 수강하며 추가되는 내용 필기 해 넣는 것도 단권화라면 단권화가 아닐지 싶습니다.

3) 전반적인 공부 방식



저는 시기별로 나누기보다 공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갔는지에 대해 기록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방식은 없었으며 오로지 저에게 맞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공:교육학 비중

1-6월까지의 거의 5:5 정도로 공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육학 기초지식이 전문했고 교육학을 잡아 두어야 안정적으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공부했습니다. 7-8월에는 전공:교육학=6:4, 9-10월에는 7:3, 11월에는 8:2 정도로 점차 줄여 나갔습니다. 전공 분량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 비중을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공부의 방향이 전공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큘럼 쪽 따라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매일 오전 교육학, 오후 전공을 보며 실전 시험 시간에 해당 영역이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계획표를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교육학 인출이 끼어 있지만 극 하반기에는 회독으로 끝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쁘고 깔끔하게 계획표를 쓰지 못해서... 썩스럽군요.. 희소에서 받은 플래너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 집 vs 독서실

저는 무조건 독서실에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딴 짓 하고 침대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극단적인 장 의존형 의지박약인 저에게는 독서실이 최선이었습니다. 노량진에 위치한 독서실을 잡아서 1

월 공부 시작부터 다녔습니다. 스터디원 선생님과 매일 아침 기상 인증을 진행했고 무조건 8시 전에는 집에서 나와 독서실에 갔습니다.

➤ 휴식

1-10월까지의 매주 일요일에 꼭 휴일을 가졌습니다. 그 날 하루만큼은 늦잠도 자고 가끔 술도 한 잔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접어들고 나서는 일요일에도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만 채우자 생각하고 늦잠 좀 자고 일어나서 독서실에 갔고, 집에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갔습니다.

➤ 공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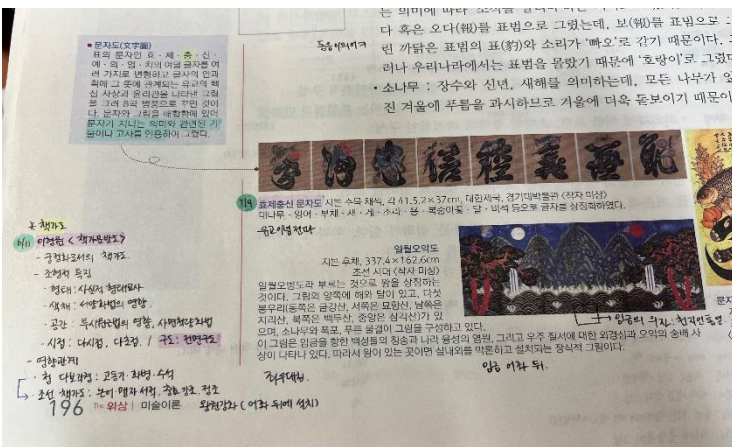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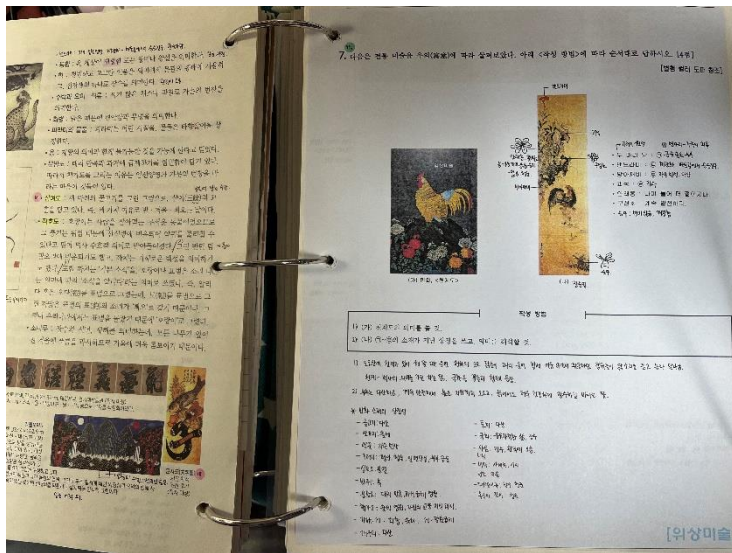
많은 분들이 열품타 사용하실텐데 저도 열품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플에 찍히는 숫자만큼 정말 공부를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탄짚도 하고 즐기도 하고... 하반기부터는 순공부시간을 따로 재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사용했습니다. 스터디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순공부시간만 측정하면 보통 8-9시간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하면 10시간 정도? 그러니 공부시간이 적다고 스트레스 전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보다 얼마나 그 시간을 밀도있게 썼는가입니다.

➤ 모의고사

전공, 교육학 모두 수강 중인 선생님이 제공하는 모의고사만 풀었고 공개 모의고사도 빠짐없이 신청했습니다. 직강에 나갔기 때문에 시간 안배나 답안 작성 요령은 어렵지 않게 터득했습니다. 모의고사의 가장 큰 역할이자 장점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강을 선택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모고반 만큼은 반드시 직강 나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더불어 모의고사 점수 보시고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 점수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튀어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틀릴 거면 모의고사에서 틀리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복습하고 취약점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오답 정리 하신텐데, 저는 전공 모고는 단면으로 복사해서 거기에서 이론 정리하고 기본서에 끼워 단권화 했습니다. 교육학은 추가 이론만 기본서에 필기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만 표시하는 용도의 형광펜을 따로 구매하고 기본서에 표시해 가며 공부했습니다.



→ 단면 복사, 기본서에 끼워 정리

사진상의 보라색 형광펜이 모의고사 출제 내용입니다. 초록색 원형 스티커에는 모의고사를 본 날짜를 기록해 붙였습니다. 커리큘럼 쪽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새 기본서 구석구석 그 형광펜이 칠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썸 표현을 빌리자면 '구석지' 이론까지 모의고사에 등장하니 실제 시험에서 엉뚱한 게 나오더라도 이미 단련되어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백프로.. 난생 처음 보는 게 하나쯤은 나옵니다.

➤ 운동

초반에 3개월정도 오전반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오전반이 없어지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독서실, 학원에 오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며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멘탈관리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은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 내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공 스터디에서 만난 쌤과 같은 독서실에 다니며 매일 밥도 같이 먹고 공부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누며 정말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선생님 뿐 아니라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던 선생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공부하는 내내 정말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스터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제가 운 좋게 최고의 스터디원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 1회 휴식을 가진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나면 휴식에 대한 속죄의 마음..ㅋㅋㅋ과 함께 일주일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교생실습 때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와 그 때 기록했던 일지를 들여다 보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돈도 써 주고... 작게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시간과 감정소모를 많이 요하지 않는 취미를 가지시는 것 역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 학습 방법

1) 교직적성 심층면접

면접은 따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1 차 시험 직후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에 글을 올려 스터디를 꾸렸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꾸렸을 때의 기준은 동일 지역 타 교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체능 교과는 실기 시간 때문에 스터디를 구하기가 어려운 편인데다가 초수고 2 차 준비 경험이 없다고 하니 아무도 저를 스터디에 끼워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 스테디

1차 발표 전까지는 주 1회 3시간씩 모의면접을 진행했고, 1차 발표 이후부터는 주 2회 3시간씩 진행했습니다. 실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매일 했습니다. 모의면접 문제는 실제 문제처럼 만들어서 스테디원 쌤들과 바꾸어 풀었습니다.

➤ 교재

교재는 면접레시피, 확알면을 봤습니다. 면접레시피는 워낙 많이들 보시는 책이라 스테디의 기본서 같은 느낌이고 확알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각 교재에서 제공하는 모의문제의 양상은 상당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같이 스테디 하던 쌤들과 미래교육 플러스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도 1차발표 전까지는 진행했으나 발표 이후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교육은 면접레시피 카페에서 공유받은 요약본만 보았고, 시책은 학원에 오가는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실기가 끝난 이후에는 교육감님 신년사와 함께 두고 주안점을 둘 시책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 방법

면접과 수업실연 모두 해당하는 말이지만 반드시 영상을 세 번 이상은 촬영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모든 모의면접, 모의실연을 촬영했고 다시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의면접은 하고 나면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꼭 영상촬영 하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녹취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에서의 주안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묻는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것.
- 두괄식 답변. 여러 가지를 말 할 경우 첫째, 둘째로 정리해서 말할 것.(교육학 논술 서술방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 자신감, 미소, 자연스러운 시선 안배.

- 학교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답변, 확고한 자신의 교육철학.

➤ 청심환, 인데놀

청심환과 인데놀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둘 다 먹지 않았습니다. 모의면접 때 청심환을 한 번 먹어 봤는데 멍해지면서 붕 뜨는 느낌이라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전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인데놀을 처방 받은 쌤께 듣기로는 떨림이 많이 가시고 감정을 조절하기 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맞는 약은 아닐테니 처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일주일 전쯤 한번 드셔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면접 복장

대부분 블랙/화이트 기본 정장을 하십니다. 베이지색 정장을 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자켓, 검정 슬렉스를 입고 굽 없는 검정 로퍼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하나로 내려 묶었고 양쪽 귓볼에 진주귀걸이를 제외하고 모든 피어싱은 빼고 갔습니다. 단정하게 기업 면접처럼 정장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수업실연 모두 손목시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면접과 실연 자체는 큰 숫자로 표기된 전자시계가 있어서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구상실에 입실하게 되면 시간을 재 주시지만 저에게 시계를 주고 가지는 않으셔서.. 손목시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예 정각으로 시간을 맞추어 두고 구상 시작과 동시에 시계를 다시 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관리번호 2번을 뽑았는데, 차라리 앞 순서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앞 순서여서 그랬는지 면접관 세 분 중 중앙의 면접관님만 저를 보고 계시고 양 옆의 두 분은 자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다 생각하고 저를 보고 계시지 않더라도 시선 모두 안배하며 진행했습니다.

시험장 들어가면 열이면 아홉 평소보다 못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니 말이 평소처럼 안 나온다

고 긴장하거나 얼어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고싶은 말 전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해진 답변 시간이 있으니 정면의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며 그 안에 답변을 마쳐야 합니다..! 과하게 말이 길어지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답변을 마치고 나니 1분 30초정도 남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은 수업실연이었습니다. 평소에 스터디 진행하면서 목소리와 톤, 태도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항상 지적받았던 것은 제가 말이 너무 많다는 것,, 욕심이 과해서 항상 설명을 와다다 하려다 보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걸 보완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 스터디

수업실연 준비는 위상팀 2차강의를 수강하며 직강생 대상으로 즉석에서 짜 주시는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같은 지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구성했는데, 다들 열정적이고 좋은 분들이셔서 성심성의껏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다. 실기 시험 전까지는 주 2회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은 저까지 4인이었고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실기 시험 이후에는 매일 했습니다. 기출을 모두 푼 이후에는 위상팀 제공 예시 문항과 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때 문제를 풀었던 지도안은 모두 카톡방에 탑재해 지도안 피드백까지 진행했습니다.

➤ 수업실연에서의 주안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학습목표, 학습내용의 유기적인 연결
- 학습내용과 명확한 연결점이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동기유발(재미만 고려해서 동떨어지면 곤란)
- 학생과의 상호작용

- 자신감,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
- 아이들 수준과 눈높이를 고려한 설명 및 용어 사용

➤ 수업실연 복장

면접 복장보다는 가볍지만 교사다운... 양전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풀 정장을 하신 선생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렉스를 입고 면접 때와 같은 굵은 굽 없는 검정 로퍼를 신었습니다. 자켓은 입지 않았습니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는 내려 묶었고 양 귓볼의 진주귀걸이 한 쌍을 제외한 모든 피어싱은 빼고 갔습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관리번호 11번을 뽑았고, 4시쯤 구상실에 입실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지간히 고역이라... 위에서는 히터가 내려오고 렌즈 낀 눈은 건조해서 끊임없이 눈을 비비다 보니 눈화장이 한 쪽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ㅋㅋㅋㅋ... 그렇게 반쪽짜리 눈 상태로 수업실연을 했고,, 어쩔 그렇게 떨리던지 손과 다리를 벌벌 떨면서 판서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조건은 동기유발, 스캠퍼 설명 없이 바로 예시작 보여주며 상호작용, 이후 자료 검색,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기유발에 힘을 너무 주는 바람에 아이디어 스케치는 우리 다 했죠~? 하고 넘어가고 발표도 한 명에게만 시켰습니다. 학습목표 다시 짚으며 활동 정리하는 와중에 끊겨서 며칠동안 수업실연을 망쳤다는 생각에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건도 제대로 못 지키고 괜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스캠퍼 판서나 하고... 눈화장은 한 쪽이 없고 했던 말 반복하고 발발 떨기만 했으니 점수가 볼 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만점이 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세 분의 평가관 모두에게 시선 안배하며 최대한 평소처럼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순회지도는 세 명에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도안은 슬쩍슬쩍 보면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탁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머뭇거리거나 얼어버릴 바에는 지도안을 살짝 보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도안

지도안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신경 썼던 것은 조건을 모두 지킬 것과 간략하면서도 누가 봐도 제 지도안을 가지고 실연할 수 있게끔 체계적일 것이었습니다. 지도안은 수업을 위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에 두고 작성한다면 좋은 지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지도안을 쓰자니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따로 나오는 구상지에 도입부터 전개까지 과정을 얼추 계획하고 나서 조건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며 세부적인 학습내용을 대입해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업실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략적인 계획도 짚습니다.

3. 합격을 결정 짓게 해 준 나만의 공부 방법

무조건 인출입니다. 이해가 되셨고 용어가 어느정도 눈에 익었다면 바로 인출 시작하세요. 회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맞는 스터디원 선생님이 계시다면 많은 부분을 그 분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분과 기상인증, 전화스터디, 구두인출, 수기인출, 요약노트 제작을 모두 함께 진행했습니다. 학원 방학 기간에는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4. 선생님이 당신의 합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끝까지 남아 질문 받아주시고 마지막에는 몸이 좋지 않으심에도 열강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용기와 응원을 얻었습니다. 장쌤께서 언급하시는 공부법은 정말 기본이고 진리이니 잘 모르겠다 하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 분 선생님 정말 귀여우세요..ㅋㅋㅋㅋ 선생님들 나름의 위트와 귀여움으로 지루한 고시생활에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5. 합격에 도움이 된 선생님과 강의/교재 활용 후기는?

앞서 언급했듯 저는 모든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했고 기본서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임용 공부의 결국 기본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새로운 이론을 알게 되더라도 기본이 되는 중심이 탄탄하지 못하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이론 다회독 하시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셔서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큰

자신이 되리라 봅니다.

6. 회소 학원이 당신의 합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강의가 지원되고 실전형 모의고사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본 모의고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실전과 비슷하니 선생님들은 고민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서 응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해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도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지루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 고시 공부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 잘 모릅니다. 특히 미술은 워낙 폭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 모른다고 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신 위상 선생님, 장지연 선생님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bb 흔들리고 휘어지되 꺾이지만 앓는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에 설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께 무한한 응원과 애정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만납시다!